

해임, 집행정지, 또 해임...

방통위의 막가파식 방문진 흔들기



지난 두 달 동안 방송문화진흥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권 출범 직후부터 국세청, 고용노동부, 감사원 등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MBC를 탄압해왔던 윤석열 정권은, 한 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본격적으로 방문진 접수 작업에 착수했다. 법과 절차는 모두 무시했다. 이동관 취임 전 어떻게든 이사장 교체 작업을 끝내기 위해 이사장에 대한 감사원 소환 조사도, 방통위의 현장 조사도 이뤄지기 전에 해임 절차를 개시했다. 법원이 권 이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집행정지를 결정했음에도, 이동관 방통위는 법원 결정마저 무시하며 김기중 이사 해임까지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9명인 방문진 이사는 한때 10명이 됐다 지금은 8명이 됐고, 그 사이 방문진 업무는 사실상 중단됐다. 방통위가 방문진의 업무를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법원,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 그러나..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방통위의 방송장악 폭주에 제동을 건 판결이었다. 통상 행정의 안정성을 이유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통위가 얼마나 무리하게 해임을 밀어붙였는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여기에 방통위가 권 이사장 해임 이후 보궐이사로 임명했던 김성근 씨에 대한 임명처분 효력정지 결정까지 연이어 내려

졌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수순이었다. 이로 인해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추천 이사 2명을 해임해 방문진 이사회 구도를 여권 우위로 역전시키고, 곧이어 MBC 경영진을 교체하려던 방통위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이동관 방통위는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 권 이사장과 똑같은 해임 사유로 김기중 이사 해임을 밀어붙였다. 이사장과 이사의 책임에 경중이 다를 것이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에 제동이 걸렸는데도 또다시 해임 절차를 강행한 것이다. 법과 절차 위에 군림해 온 이동관이라지만, 법원 결정까지 이렇게 대놓고 짓밟은 것은, 방송장악에 이성을 상실한 몫니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방통위의 막가파식 폭주에 지난 한 달 사이 방문진의 여야 구도는 요동쳤다. 권 이사장 해임과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으로 4:5가 됐다,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이 정지되면서, 이사가 10명인 위법적 상태(4:6)가 됐다. 다시 김기중 이사 해임으로 4:5가 됐고, 같은 날 법원이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효력정지를 결정하면서 현재는 '여 3: 야 5'인 상태가 됐다. 김기중 이사에 대해 권 이사장처럼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방문진 구도는 다시 여야 3:6 체제로 돌아가게 된다.

무소불위 직권남용...방통위 공수처 고발

취임 첫날인 지난달 28일, 권태선 이사장의 보궐이사로 부적격 인사인 김성근을 꽂아 넣었던 이동관은, 지난 18일에는 자신이 직접 김기중 이사를 해임했다. 5인으로 구성돼야 할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 이동관, 이상인 단 두 명만이 있는 비정상적 상태에서 독단적으로 해임을 강행했다. 정당한 해임 사유가 없음이 법원 결정을 통해 확인됐음에도마저 무시하고 해임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다.

이에 조함은 지난 20일, 이동관과 이상인을 포함한 방통위 고위공직자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권 이사장 해임 의결과 관련해 김호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 6명을 고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의 제동에도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방통위는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법원 결정 이후 당장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경찰 수사, 방문진 이사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방송장악이란 목표 아래 법과 절차, 법원의 결정까지 대놓고 짓밟고 있는 이들에 대한 신속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방통위의 방문진 장악 시도 일지

- 8. 2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 · 김기중 이사 해임 절차개시
- 8. 3 감사원, 권태선 이사장 소환 조사
- 8. 4 방통위, 방문진 현장 조사 시작
- 8. 9 방통위, 임정환 이사 보궐이사로 차기환 임명
- 8.21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 해임 의결
- 8.28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 보궐이사로 김성근 임명
- 9.11 서울행정법원,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
- 9.18 방통위,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 서울행정법원, 김성근 보궐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

위원장의 편지

가야할 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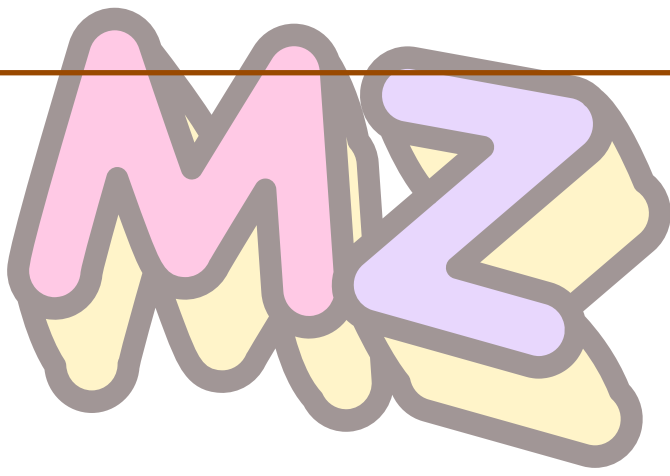
MBC와 노동조합을 향한 안팎의 공격이 거셉니다. 이번 기회에 끝을 보겠다는, 때론 살기마저 느껴집니다. 왜곡, 불공정, 가짜뉴스를 들먹이며 막가파내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격에 앞장서는 그들이 누구인지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명박근혜' 정권의 복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김재철, 안광한, 김장겸 시절로의 회귀입니다.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과욕은 반드시 화를 부를 겁니다.

지난 5년여 시간을 돌아봅니다. 승리의 기쁨을 안고 복귀했고, 우리는 더 나은 MBC를 만들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했고,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조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약속,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헌신했던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켜내는 데도 부족함이 컸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주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들을 만났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MBC를 탐하려는 자들의 비난에 굴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조언과 질책에는 늘 마음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겠습니다.

저에겐 여전히 'MBC'란 세 글자에서 느껴지는 뭉클함이 있습니다.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비슷한 감정을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일과 조직, 동료들에 대한, 내려놓기 어려운 저마다의 애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MBC 노동조합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모아진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300장 탄원서에 담긴 조합원들의 마음이 방송장악 폭주에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이 승리의 길인지, 가야할 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늘 조합과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5기 집행부 역시 늘 조합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 호 찬



폭폭 찌는 폭염에 한없이 지쳐갔던 지난 8월 중순, MBC의 젊은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2018년 이후에 입사한 이른바 MZ 조합원들. 각 부문에서 골고루 모인 8명의 MZ 조합원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현재의 조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조합의 역할과 앞으로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솔직하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다 편안한 소통을 위해 발언자는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합은 한 걸음 물러나 이야기를 들었고, 최대한 가감 없이 전합니다. 진행은 아나운서국 박창현 조합원이 수고해주셨습니다.

조합에 MZ의 색을 더하다

1 우리 조합에 대한 인상이나 평가 한마디?

“저희 노조가 다른 회사 노조에 비해 정치색이 강한 것 같아요. 다른 회사 노조는 임금, 복지 문제를 주로 하는데 저희 노조는 회사가 언론사이기 때문이겠지만 그럼에도 정치색이 너무 강해 보여요. 그러다 보니 제가 조합 활동에 적극적이기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조합이 공정방송 외에 근로조건이나 복지는 별로 생각 안하시는 것 같아요. 조합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조합의 단합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조합이 추구하는 가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공정방송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정방송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평가가 조금 박하네요. 잘 하고 있는 건 없을까요?;;

“이번에 복지 포인트도 좀 올랐고, 조합의 노력을 아예 체감 못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복지 같은 부분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는 게 보여요.”

“이번 복지카드 인상된 거 좋았어요. 노조도 사내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부모님 구순에 관한 복지가 새로 생겼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가 바뀌었으니 미혼자분들에 대한 복지가 좀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3 MZ가 조합에 관심 없다는 시선도 있는데, 가입한 계기는?

“전에 다녔던 회사는 무노조 회사였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는 직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힘이 있는 노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입사했을 때 선배들이 취재를 하거나 보도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잘 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해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 노조에 가입해 있으면 방패막이나 지켜 줄 사람이 한 척은 더 있는 거다, '회사에서 일할 때 마음을 더 놓고 편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뭔가 울타리 안에서 너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봐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사실 파업을 겪지 못한 세대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 들어와서는 파업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승리하신 분들의 유대감도 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이 되지 못한 구성원들과의 어쨌든 같은 부서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이런 점에 대해서 파업을 겪지 못한 세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할 때 부서 선배들로부터 파업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부서에 노조 활동 하셨던 선배님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조합에 가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합과 함께 하길 잘했다”는 말을 들을 그날까지, 더 경청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4 MBC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공영방송 MBC의 구성원으로 고민이 있나요?

“MBC에 다닌다고 하면 주위에서 어느 회사가 이렇게 선거 결과에 따라, 또 집권 세력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바뀌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을 많이 해요.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방송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약자를 위해서 옳은 건 옳다 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공영방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내부도 공정하지 않은데 ‘저희는 사회 약자를 위해서 일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잘 동의가 안 돼요. 내부 불평등이 해소돼서 당당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MBC의 구조가 주인 없는 회사라는 게 큰 것 같아요. 주인 없는 회사니까 돈도 우리가 벌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율성이 생기자 보니 시사고발 프로그램이나 뉴스도 더 센 어조로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걸 지키려면 저희가 자금자축을 해야 하잖아요. 옛날에는 드라마나 예능 등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고 회사가 돈도 많았잖아요. 지금은 자금자축은 잘 못하는데 시사고발 쪽에만 편중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의 이미지가 그냥 정치적인 회사로만 보이게 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자극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런 거는 공영방송과 어떻게 보면 또 모순되는 가치인 게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공영방송이라는 색깔을 지키면서 경쟁력도 갖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는 저희가 좀 계속 고민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합이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임금 인상과 복지 향상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사 상황과 협상 과정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는 것에도 공감하지만, 그런 상황과 별개로 계속 더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바뀌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입사 이후 가장 애사심이 커졌던 건 작년, 재작년인데 ps 나왔을 때였어요. 반대로 퇴직금 누진제 폐지 같이 저연차 사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어졌던 사례는 정말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해요. 저희 동기들도 노조 나가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았고 그때 실제로 나간 친구들도 있어요.”

“요즘은 아이가 없는 직원들도 많아서 학자금 이런 건 저희는 상관도 없거든요.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복지 범위를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혼이나 비혼 늘어나고 있는 분위니까 그거에 맞춘 복지도 필요할 것 같아요.”

“회사 콘도가 너무 낡았어요. 지금 콘도 수를 줄이더라도 괜찮은 곳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육아휴직도 저희 1년 6개월인데 다른 회사는 사기업들도 요즘 다 2년씩은 하더라고요. 육아휴직 등 복지 부분이 향상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장 이것 해주겠다기보다 ‘조합이 늘 복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제가 30년을 다닐 회사라면 이렇게 5년마다 전전공공하는 회사가 되면 안 되겠다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조합이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MZ가 조합에 애정을 갖고 소속감을 갖게 하려면?

“새로운 젊은 세대의 사원들이 들어왔을 때 노조 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뭔가 이슈가 생겨서 노조에서 단체행동을 하게 될 때 동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경찰이 보도국 압수수색하려고 들어왔을 때 막으려고 나왔어요. 그런데 같이 나온 후배가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조합이 지금 피켓을 들고 나서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조합원들을 더 납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노조 대의원 출마할 때 출마 목표가 '노조에 MZ 맛을 더하겠다'였어요. 조합에 그 뜻이 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문별로 조합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신입이나 경력이나에 따라 조합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를 거 같아요. 조합이 하나의 조합 구성원으로서 공통된 생각을 교류하는 게 약한 거 같아요. 이 자리처럼 부문을 넘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자리가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만배 녹취록 인용 보도가 대선 공작? 따져봅시다

김만배-신학림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확인된 이후, 그 파장이 거세다. 김만배 녹취록 보도 자체를 대통령실은 ‘희대의 대선공작’이라 규정했고, 여당 대표는 “사형에 처할 만한 국가반역죄”, “일급 살인죄” 등의 극언으로 화답했다. 여당 의원들은 관련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무더기 고발했고, 검찰은 유례없는 언론사 동시 압수수색에 나섰다.

MBC 기자 4명이 고발됐다.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기자뿐 아니라 배경 설명과 정치권 공방을 다룬 기자도 포함됐다. 고발 혐의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었다. 뉴스데스크뿐 아니라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중이라 한다. 방통위는 공문을 보내 인용 보도 경위를 제출하라 요구했고, 방통심의위는 인용 보도를 이유로 방송사 3곳에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를 결의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해 3월 7일,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 관련 리포트는 모두 4개였다. 첫 리포트는 뉴스타파를 인용한 스트레이트 보도였고, 두 번째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배경 설명, 세 번째는 녹취록에 등장한 이재명 후보 관련 내용, 네 번째는 당일 정치권 공방이었다. 민실위는 해당 보도에 대한 뉴스룸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고, 논란의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한다.

1. 검증 없는 인용 보도?

민실위 확인 결과 뉴스룸 취재진은 뉴스타파의 첫 보도 이후 신학림 씨와 통화해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에 대해 물었고, 김만배 씨와의 실제 대화 녹취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녹취록 전문에 대해선 신 씨뿐 아니라 뉴스타파 측에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박영수 변호사 측과도 접촉해 기사에 반론을 반영했고, 조우형 씨와는 접촉할 방법이 없어 연락을 취하지 못했지만, ‘검증 없는 인용 보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달랐다.

2. 대선 이틀 전 보도할 만한 사안이었나?

대장동 사건은 지난 대선을 뒤흔든 핵심 이슈였다. 그 핵심 관계자인 김만배의 대장동 관련 육성이 공개된 건 뉴스타파 보도가 처음이었다. 김만배 육성의 뉴스 가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뉴스타파 보도가 당시 정치권 공방의 주요 쟁점이 된 상황에서, 시청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 또한 언론의 당연한 역할이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인용 보도를 할 만한 사안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크게 없었다.

3. 타사에 비해 과한 보도? 검증은 충분했나?

지상파 3사만 비교한다면, 당시 MBC는 4개, KBS는 1개, SBS는 대선 리포트에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정도로 보도했다. 이를 두고 내부 의견은 엇갈렸다. “대선을 이틀 앞둔 시점에서 4개의 리포트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인용 보도를 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명확히 기사에 담았어야 했다”는 의견부터, “뉴스 가치에 대한 판

단은 편집권의 영역이다”, “의혹 당사자의 육성 파일이 담긴 보도를 축소,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이다”이라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검증의 노력이 충분했는가를 놓고도 “민감한 시기였던 만큼 더 철저했어야 했다”는 의견과 “인용 보도의 기존 관례를 볼 때 결과론적 비판일 뿐”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내부적 토론을 통해 적절성을 따질 사안이지, 국가기관이 개입해 옳고 그름을 판정하고, 나아가 검찰 수사까지 벌일 사안이 결코 아니란 점에서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 또한, 김만배-신학림 사이 돈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김 씨의 발언 관련 보도 전체를 허위로 단정하고, 나아가 대선 공작으로까지 몰아가는 데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인용 보도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검찰 수사엔 단호한 대응”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인용 보도에 대한 뉴스룸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하고, 이를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실위의 판단이다. 프로그램 제작가이드라인에 대체적인 원칙은 담겨 있지만,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선 뉴스룸 구성원들의 판단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실위는 또한, 사측이 제작진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 조치와 검찰 수사에 보다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구성원 보호를 넘어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의 독립을 지켜내는 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민실위 역시 정권의 도를 넘는 언론 탄압에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서울지부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출장비 현실화 등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확대 방안 마련해야”



15기 집행부와 현 경영진의 두 번째 노사협의회가 지난 6일 열렸다. 노사는 먼저, MBC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 매우 엄중해진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조합은 지난 5월에 열린 1차 노사협의회 당시 논의했던 안건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출장비 규정 등 구성원들의 근로조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부장 직급 승진 등 빠른 시행 촉구

조합은 지난 상반기 정기승진에서 누락됐던 국부장 직급 승진을 서둘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사측은 지난 5월 노사협의회에서 비상경영 등을 이유로 직급 승진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조합은 ‘연 1회’ 직급 승진은 노사의 약속이며, 경영 상황과 승진은 직접적 연관도 크지 않은 만큼 사기 진작을 위해 국부장 승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노사협에서도 조합은 승진 안건을 다시 제기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도 ‘국·부장 승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합은 또, 전문직 승호를 일반직과 같이 ‘연 2회’로 확대달라고 다시 요구했다. 전문직이란 이유로 승호 횟수에서 일반직과 다른 처우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제도 변경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사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전문직 전환 시 군 경력 인정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합의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 스포츠국 조직개편에 따른 평가 요구에 대해서는 스포츠국, MBC플러스, 정책기획팀으로 구성된 ‘스포츠경쟁력강화협의체TF’를 출범시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조합은 카메라감독, 미술, 아나운서, 스포츠PD 직종이 채용 계획에 빠진 점을 강하게 항의했고, 사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채용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조합은 또 MBC를 둘러싼 외부상황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는 만큼, 신입사원 채용이 무사히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에 멈춰 있는 출장비 등 현실화해야”

조합은 근로조건과 복지와 관련해 조합원들의 많은 요구가 있었던 출장 여비 인상을 사측에 강하게 요구했다.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12년간 인상이 없었던 만큼, 그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측 역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추후 조합과 협의해 구체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장 이용 확대 방안에도 논의했다. 조합은 업무상 불가피하게 주차가 필요할 경우조차 사내 주차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사측은 현실적으로 정기간 수요가 많고, 물리적으로 주차 공간을 넓히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조합이 요구한 일정 횟수의 주차 쿠폰이나 셔틀버스 운행 등 여러 아이디어에 대해선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회사는 올해 7월까지 8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고, 연말까지 4백억 원 안팎의 적자를 예상한다며, 프로그램 제작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적자 폭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MBC본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 확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교섭대표 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해 심문회의를 열고, 제3노조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MBC본부는 향후 2년 동안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게 됐다. MBC본부는 앞서 전국 15개 지부(포항 MBC 제외)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한 바 있다.

서울의 창구단일화 과정을 살펴보면, 조합은 지난 8월 3일 사측에 교섭요구를 하였고, 제3노조와 '차별없는 노동조합'도 교섭 참여를 원했다. 당시 전국언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은 1천 73명, 제3노조는 106명, '차별없는 노동조합'은 6명이었다.

이에 따라 사측은 지난 8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했다. 그러나 제3노조는 MBC 본부가 사용자성 근로자를 조합원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심문회의에서 조합은 사용자성 근로자는 조합원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심문 위원 중에는 제3노조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성 근로자는 제3노조에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 근로자 여부를 판단과 상관없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서울지부가 압도적 다수이므로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확보한 만큼, 조합원들의 권익 신장과 공정방송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MBC 내 다른 노동조합과 비조합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다.

조합 신규 가입자

2023년 8월 이후

서울 지부

유예현, 장은희, 최다슬, 이예나, 장은영, 임혜주, 노송희 (이상 경영)

지역 지부

천홍희(광주), 김옥진(부산), 유주성(원주), 김리현(제주), 홍해영(춘천)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 방송3법 개정으로 끊어내야

지난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직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면서, 방송3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의 상정은 무산됐고, 언제 상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가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3법은 정권의 폭주를 막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방통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수많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쫓아냈고, 결국 KBS 사장까지 해임했다. 방송3법의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확대하고 그 구성을 다양화해 이런 정치권력의 방송장악 시도를 차단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는 당장 방송3법을 처리하라. 야당일 때는 법 개정을 부르짖다 정권만 잡으면 스스로를 부정하며,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악순환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 지난 정권에서 법 개정 약속을 지켜내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언한 대로 지금이라도 방송3법 처리를 완수하라. 아무런 대안도 없이 거짓 주장만 반복하는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내려놓고, 방송3법 처리에 협조하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적 손익계산과 정쟁에 매몰돼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진보를 막아나서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역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시민단체들은 지난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기원하는 의미로 릴레이 108배를 진행했다. MBC본부에서는 이호찬 본부장과 송진우 사무처장이 방송3법 개정을 촉구하는 108배를 완수했다.



공영방송 지키기 토크쇼 [언론아싸] 공개 생방송 현장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이진순 민연련 상임공동대표, 방송인 오윤혜씨의 사회로 이호찬 본부장을 비롯해 강성원 KBS본부장, 고한석 YTN지부장, 송지연 TBS지부장이 참여해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실태를 고발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한 공영방송 지키기 토크쇼 [언론아싸]

지난 19일 저녁,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언론아싸]의 시즌1 마무리 방송이 공개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먼저 1부 '찢린' 해고자들의 언론장악 증언이란 주제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미정 전 EBS 이사, 최기훈 뉴스타파 기자가 패널로 나서, 법과 절차 등을 모두 무시한 현 정권의 막가파식 언론장악 실상을 전했다.

2부에선 [언론아싸] 고정패널인 MBC, KBS, YTN, TBS 본, 지부장들과 이진순 민연련 상임공동대표가 함께, 댓글을 통한 시민 질문에 답변하고 현장에서도

실시간 질의 응답을 진행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을 포함해 총 8차례 방송된 [언론아싸]의 모든 방송은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